
 인천광역시		<b>보도자료</b>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3년 2월 3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해양항만과	담당자	• 해양산업팀장 • 담당자		나민환 ☎440-4846 정유진 ☎440-4848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3년만에 인천오는 크루즈선 ... 인천시,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**  
**- 3일, 인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-**  
**-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새로 위촉, 크루즈산업 육성해 인천경제 활성화 기대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월 3일(금)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하고,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2018년 12월 최초로 구성된 인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는 시 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,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한다.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말 만료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의 위촉식과 3년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과 관련한 시의 준비사항,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 등 크루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.

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입항금지 조치로 중단됐던 크루즈 운행은 지난해 10월 해수부의 ‘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하선 관광 재개 등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 안내’로 3년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.

오는 3월 승객 544명을 태우고 홍콩에서 출발하는 하파로이드의 유로파2(4만3천톤급)가 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시작으로, 올해 12항차 18,148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크루즈전용터미널 및 내항 등을 통해 인천을 찾을 예정이다.

시는 이러한 크루즈 재개 시점에 크루즈산업분야 전문가인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시 정책에 접목,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공항 및 22만5천톤의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내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터미널 등 훌륭한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, 크루즈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”며 “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,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#### <회의사진>



**□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개요**

- 설치근거 :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포함 10명
  - 당연직(3) : 행정부시장(위원장), 해양항공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
  - 위촉직(7) : 시의원(1), 크루즈산업 및 연관분야 전문가(6)
    - ▲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, 인천재능대학교 손해경 교수, 한국관광협회 김병삼 사무처장, (주)야놀자 신성철 이사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, 인천관광공사 김민혜 송도컨벤시아사업단 단장, 아시아 크루즈국제협의회 임복순 사무총장
- 위원회 임기 : '23. 1.16. ~ 25. 1.15. (2년, 1회 연임가능)

**□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개최 개요**

- 개최일시 : '23. 2. 3.(금) 14:30 ~ 16:00
- 개최장소 : 인천광역시청 본관 4층 공감회의실
- 참 석 : 해양항공국장,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 7명
- 주요내용
  - 위촉장 수여(7명), 기념촬영, ' 23년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, 토의 및 자문